

# KIA 외인투수 브룩스·가농 '동반 10승' 기대만발

브룩스, 2019시즌 풀타임 메이저리거...볼에 힘 좋아

가농, 트리플A서 2점대 평균자책점에 기량 상승세

KIA 외인투수들이 동반 10승에 성공할까?

KIA 타이거즈가 플로리다 스프링캠프를 알차게 진행하고 있다. 플로리다 캠프에서 단연 관심을 두 명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 가능성이 있다. 5장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운드에 힘이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투수들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KIA가 2001년 창단 이후 호성적을 올릴때는 항상 외국인 투수들이 활약했다. 2009년 우승 당시에는 아킬리노 로페즈와 릭 구토스의 외인 원투펀치가 모두 10승 이상을 거두며 27승을 합작했다. 2017년 우승 때도 헥터 노에시가 20승을 따냈고 팻던이 9승으로 뒤를 받았다.

외인들이 부진하면 성적은 추락했다. 2019시즌도 두 명의 외국인 투수들을 도중 교체없이 완주했으나 낙제점을 받았다. 제이콥 터너는 7승13패 평균자책점 5.46, 조 월랜드는 8승10패 평균자책점 4.75에 그쳤다. 타선과 수비지원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었지만 마운드 지배에 실패했고 팀은 8위로 떨어졌다.

KIA는 전원 교체를 결정하고 30살 동갑내기 애런 브룩스와 드류 가농을 영입했다. 브룩스는 2019시즌 풀타임 메이저리거였다. 가농은 트리플 A에서 2점대 평균자책점을 자랑했다. 기량이 상승세에 있어 KIA 행이 어려운 투수들이었다. 그러나 매트 윌리엄스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다.

실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이 높다. 실제로 캠프 불펜 피칭에서 좋은 볼을 던져 희망을 낳고 있다. 브룩스는 볼에 힘이 좋고 가농은 볼끝의 변화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 투수 모두 뛰어난 체인업과 제구력을 갖추었다. 타자들과 승부를 피하지 않고 안정감있게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평가이다.

무엇보다 성격도 원만하다. 작년에는 터너는 등판할 때면 유난히 예민했고 마운드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 한국식 문화 적응에 애를 먹었다. 가농과 브룩스의 훈련을 지켜본 조계현 단장은 "성격이 대단히 오픈되어 있다. 동료들과 친해지려고 장난을 거는 등 스킨십을 잘하고 있다. 예전 외국인 선수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아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동반 10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KIA 외인

들의 동반 10승은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2009년 로페즈와 구토스에 이어 2016년 헥터(15승)와 지크 스프루일(10승)이 있었다.

양현종도 두 외인이 팀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 양현종과 함께 '10승 트리오' 희망도 커지고 있다.

## 男 쇼트트랙 박지원, 월드컵 1500m 금메달...시즌 랭킹 1위

김다겸·이유빈, 남녀 1000m 동반 금메달...월드컵 첫 금메달



박지원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박지원(성남시청)이 2019-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 1500m 우승으로 시즌 랭킹 1위에 올랐다. 김다겸(성남시청)과 이유빈(서현고)은 월드컵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지원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도르트레흐트에서 열린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19초421을 기록, 이준서(한국체대)를 0.015초 차이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박지원은 올해 2, 3, 5차 대회에 이어 네 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랭킹 포인트 4만2621점을 기록해 이준서(3만7642점)를 따돌리고 시즌 랭킹 1위를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 5차 대회 3관왕(1000m, 1500m, 5000m 계주)에 이어 16일 열리는 1000m 계주에서 다시 한 번 3관왕에 도전하게 됐다.

박지원은 중반까지 중국의 런지웨이, 이준서와 접전을 펼치다 마지막 바퀴에서 빠른 속도로 이

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선 김다겸(성남시청)이 1분33초056으로 월드컵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다겸은 마지막 바퀴 직전 네덜란드의 이즈하 더라트와 박인욱(대전일말)이 충돌해 넘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 출전한 이유빈(서현고) 또한 1분 31초004의 기록으로 자신의 월드컵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유빈은 초반 최하위로 밀렸지만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치고 나갔고, 그대로 선두를 유지한 채 레이스를 마무리했다.

여자 1500m에선 김지유(성남시청)가 네덜란드의 수잔 슐팅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고 노아름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1000m 경기에 나서지 않았고, 황대현(한국체대)은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실격했다.

뉴스1

## '아이언맨' 윤성빈, IBSF 8차 스켈레톤 월드컵서 '동메달'

두쿠르스 형제 1~2위 휩쓸어

'아이언맨' 윤성빈(26·강원도청)이 라트비아에서 열린 2019-20 국제빙상경기연맹(IBSF) 월드컵 8차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번 시즌 월드컵 랭킹도 3위로 마쳤다.

윤성빈은 15일(한국시간) 라트비아 시굴다에서 열린 IBSF 월드컵 8차대회에서 1~2차 합계 1분41초15를 기록, 동메달을 수확했다.

1차 시기에서 50초36(29)을 기록했던 윤성빈은 2차 시기(50초79)에서 다소 주춤하며 1위인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보다 1초06 뒤처졌다.

세계 1위인 마르틴스 두쿠르스

는 안방에서 열린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1~2차 시기 합계 1분40초0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차 시기에서 50초15, 2차 시기에서 49초94를 찍었다.

형인 토마스 두쿠르스(라트비아)가 0.81초 뒤진 1분40초90으로 2위에 올랐다.

마르틴스 두쿠르스는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3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랭킹도 1위(1665점)로 마쳤다.

시즌 랭킹 2위는 러시아의 알렉산더 트레티야코프(1603점), 3위는 윤성빈(1581점)이었다. 김지수(강원도청)는 1126점으로 2019-20 시즌 랭킹 9위를 마크했다.

지난달 31일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7차 대회에서 아쉽게 4위



에 그쳤던 윤성빈은 마지막 8차 대회에서는 메달을 수확하며 아쉬움을 떨쳐냈다.

윤성빈은 2019-20 IBSF 월드컵 시리즈에서 1차례 우승(3차)과 합계 2차례 준우승(5, 6차)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스켈레톤 기대주 정승기(21·가톨릭관동대)는 이날 합계 1분42초08로 8차 월드컵 대회에서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 美언론 "류현진 영입한 토론토, 스토브리그 성적 B+"

다저스B+·세인트루이스D·뉴욕 양키스A·텍사스B

현지 언론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스토브리그 성적을 B플러스로 평가했다. 역시 에이스 류현진(33)의 영입이 핵심이었다.

미국 언론 NJ.com은 16일(한국 시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별 스토브리그 행보를 점수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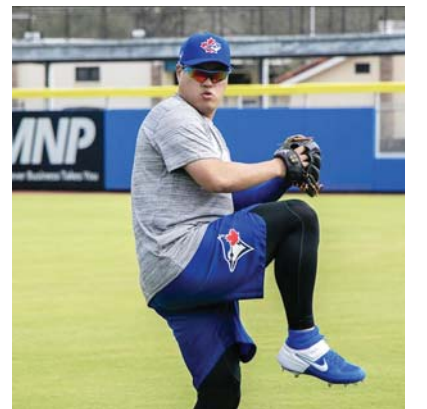
토론토에는 B플러스를 줬다. 그러면서 "토론토는 2019시즌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2위)을 펼친 류현진을 영입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설명한 뒤 "데너 로어크, 트레비스 쇼의 영입도 좋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 선발이나 구원진 모두 부족한 면이 있지만 류현진이 이끌고 젊은 선수들이 대거 라인업에 포함된 전력은 (보는 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토론토의 스토브리그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특히 류현진 영입이 일으킨 각종 효과에 주목했다. 박리그에서 베테랑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한 류현진은 아직 내구성에 대한 의심이 여전하지만 지난해 거둔 호성적을 바탕으로 4년간 8000만 달러에 토론토 유니폼을 입었다.

토론토는 류현진 뿐만 아니라 로어크, 체이스 앤더슨을 영입해 선발진을 채웠고 쇼 등 야수진도 일부 보강했다. 아직 전체적으로 강팀의 전력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전력상승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 매체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대해서는 'D'라는 낮은 점수를 줬다. 지지부진한 전력보강, 특히 타선에 위협 요소가 많다고 지



적했다. 영입리스트에는 김광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랐다.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와 2년 800만 달러, 최대 11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추신수의 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는 B, 최지만이 속한 탬파베이 레이스는 C로 평가됐다. 에이스 게릿 폴을 품은 뉴욕 양키스는 A, 류현진을 보내고 무키 베츠,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트레이드로 영입한 LA 다저스는 B플러스였다.

이승우, 2경기 연속 벤치  
신티트라위던, 리그 최하위에 떨어지

이승우(22·신티트라위던)가 2경기 연속 벤치를 지킨 가운데 소속팀은 리그 최하위에 떨어졌다.

신티트라위던은 1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벨기에 신티트라위던의 헬 반 스타에서 열린 2019-20시즌 벨기에 퍼스티비전 A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세르클러 브뤼허에 0-1로 패했다.

이로써 신티트라위던은 승점 32점(9승5무12패)으로 11위를, 브뤼허는 승점 17점(5승2무19패)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날 이승우는 지난 9일 KAS 외젠과의 2라운드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은 무산됐다.

이승우는 지난해 12월 26일 비슬란트베렌과의 21라운드에 교체 출전한 뒤 5경기 연속 결장을 이어가고 있다.

팀은 후반 18분 브뤼허의 호가스에 실점하며 끌려갔고, 이승우는 벤치에서 팀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뉴스1

## UEFA도 인정한 이강인 '주목해야할 50인의 젊은 재능' 선정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

지난해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골든볼(MVP)에 빛나는 이강인(19·발렌시아)을 향한 전 세계의 기대 시선이 2020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이 선정한 올해 주목해야할 50명의 젊은 재능에 포함됐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주목해야할 50명의 젊은 인재"를 선정해 공개했다.

하카엘 레안(20·AC밀란)과 안수 파티(17·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알렉산드로 바스토니(20·인터밀란), 메이슨 그린우드(18·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스 제임스(20·첼시), 마이론 보야두(19·알카르) 등 경쟁한 젊은 피들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강인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UEFA는 이강인을 소개하며 "공격형 미드필더인 그는 지난해 9월 라 리가 데뷔골을 터뜨렸고 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최연소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다.

UEFA가 택한 50명 중에 아시아 선수로는 이강인이 유일하다. 전체적인 기대와 달리 발렌시아에서는 좀처럼 출전 기회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이강인이다.